

칼럼



장기채 주필

이 시대 어른들은 어머니의 삶을 보고 배웠다

가로등 밑 들개는/올해도 쪽정이란다./월 틈이 없었던 거지/너도 곧 좋은 날이 올거며/지나고 바라 사 람도/밤낮 밝기만 하다고 좋은 것 아니다./보름 아녘던 그믐달 없고/그믐 없었던 보름달 없지./어들은 지나가는 거란다./어떤 세상이 맨 날/보름달만 있겠나?/뭉뚱 성하면 쓴다.

이정록의 시 '그믐달'이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어 하는 자식에게 이보다 더 현명하고 따뜻한 다독거림이 있을까. 24시간 항상 밝은 데에서 자라는 들개는 월 틈이 없어 쪽정이 되듯이 사람이 밤낮 잘나가기만 하면 속이 비기 쉽다.

우쭐해져서 자신을 돌아보고 반 성할 틈이 없기 때문이다. 어들은 지나가기 마련이니 뭉뚱 성하면 쓴다는 어머니의 말씀에서 삶의 자세를 배운다. 우리 어른들의 세대는 그렇게 어머니의 삶을 보고 배웠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엄마 품을 떠나 무엇인가 배우려 다닌다. 엄마는 자녀에게 첫 스승이고 가정은 자녀에게 첫 학교인데, 아이들은 집에서 엄마랑 보낼 시간 없이 밖으로만 나돈다. 이 모두가 세상이 흐름이다. 그러나 스승은 또한 어머니나 다

름 아니다. '스승의 날' 아무리 되뇌어 봐도 얼마나 송고하고 아름다운 말인가. 그림을 잘 그리는 철수는 선생님의 초상화를 그려 선물 할 것이다. 손뜨 개를 잘하는 연희는 선생님께 한 땀 한 땀 수놓은 손수건을 드릴 것이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토닥거리며 "정말 고맙다"라고 할 것이다. 그 순간 눈가에 맺힌 정에 선생님과 학생은 참으로 기꺼워할 것이다. 스승의 날에 그려보는 모두의 바람이다. 그래야 스승의 날 아니겠는가. 요즘은 교사들은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부담'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고 한다.

왜 이렇게 스승의 날이 천덕꾸러 기로 전락하고 말았을까. 아직도 대한민국은 4월의 아픔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학생들을 지키 다 유명을 달리한 교사들 이야기는 우리들 마음 구석까지 뭉클하게 한다. 스승의 날 풍습은 나라마다 다르 지만 우리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도 있을까. 스승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을 전 하려고 정한날이 학부모와 교사들 에게 스트레스만 안겨준다고 한다. "스승의 날이 뭐기에 우리를 이렇게 서글프게 합니까" 이말은 '스승

의 날'에 푸념하는 어느 여선생님의 녀드러다. 언제부터가 스승의 날이 다가오 면 모두가 불편해진다. 오죽했으면 스승의 날 폐지 아니면 스승의 날을 학년말로 옮겨야 한 다는 말까지 나왔을까. 잘못된 촌지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노끈으로 잡아매거나 빗장이나 자물쇠로 단단히 채우겠다는 셈이 다. 언덕을 무너뜨려 깊은 못을 메우 겠다는 것인데, 못을 메웠다고 해서 또 물이 고이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 가. 어쨌든 교육은 예를 가르치는 데 있다. 이러한 예의 근원을 실천하는 것 중의 하나가 스승에게 감사드리 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스승의 날은 행사가 아니라 교육 의 장인 것이다. 적어도 이날 만큼은 교사가 스 스로 교사다운지에 대해 성찰해야 할 것이며, 학생들 역시 스스로 학생 다운지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퇴계 이황은 성의가 가득한 의로운 선물은 모두 받아야 할 것이며, 의롭지 않은 것은 모두 받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였다. 그리고 가벼운 물건은 받아서 절 교하지 않는 뜻으로 보이고, 중한 물 건은 물리쳐 그 사람의 잘못을 깨우 치게 해야 함을 역설했다. 중한 물건을 준 학부모는 교사에 게 교만함을 부릴 것이고 교사는 어 곳남을 알면서도 무원칙의 처사를 일삼을 것이며, 이러한 것을 보다 못한 학생들은 교사를 향해 불만 불만 을 터트릴 것이다. 어쨌든 현대사회에 들어 '스승'의 의미는 많이 퇴색돼 버리고 '제자'들 은 갈갠을 잃었다. 방향성을 상실한 채 학생과 교사가 뒤엉켜 학교가 마구 흔들리고 있다. 어른 아이 구분 없이 삶의 무게는 견뎌 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참 스승이 필요할 때다. 언제나 스승의 날에는 교문을 활 짝 열고 교사들에게 함박 웃음을 안겨주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emergency, police, and fire.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s editorial and circulation departments.

비대면 택배 배송 증가...현관 앞 물품 도난 주의

최근 온라인 쇼핑 문화의 발달에 따른 배달 문화 생활화와 더불어 코로나19로 비대면 택배 물량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각종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모 언론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지난해보다 20% 증가했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자 최근엔 코로나19 우려로 물건을 직접 주고 받기보다는 현관앞에 택배 물건을 놔두는 방식의 비대면 배송이 늘어나는 점을 악용해 택배 물품을 몰래 훔쳐가는 택배 털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있어 더욱 주의를 해야할 것 같다. 더욱이 허를 내두르게 하는 것은 택배 기사가 보낸 배송문자를 확인 하고 잠시 후 택배를 가지러 문을 연 사이에 갑작같이 물건을 훔쳐가고 있다는 점이다. 배송문자 확인 후 바로 물건 수령을 위해 현관문을 열었음에도 물건이 없어지는 실정인데 택배 수령자가 장시간 자리를 비워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현관앞에 택배 물건을 놓여 있다는 것은 그만큼 택배 도난 위험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이야 코로나 영향으로 택배 배송물량이 많아졌다 해도 명절 엄청난 택배 물량 현관앞 비대면 수령 방식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당연 명절이면 택배 물량이 넘쳐 나다보니 절도범들이 아파트나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현관앞에 놓아 둔 배달된 택배물품을 훔쳐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있는데 이젠 명절이 아닌 택배털이가 우리 일상생활중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공동주택 입구에 번호키가 있는 아파트나 원룸의 경우엔 조금 안심이 된다지만 아예 현관에

번호키 자체가 없어 다수의 불특정 인이 왕래하는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의 경우에는 그만큼 택배 절도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만큼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빈집앞에 방치해 둔 택배 물건으로 하루종일 불안해 하기 보다는 가급적 자신의 근무지나 주변에 즉시 택배 수령이 가능한 지인 등의 주소지로 택배 배송을 받는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마저도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아파트 관리실 등에 위탁을 요청하되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교부가 되도록 사전에 미리 협조를 요청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김덕형/장성경찰서정보보안과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형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